

전국 160여 작가 항쟁과 촛불을 노래하다

문화로 만나는 오월

1 광주민족미술협회 '오월전'

30회 기념전 '촛불이여 오월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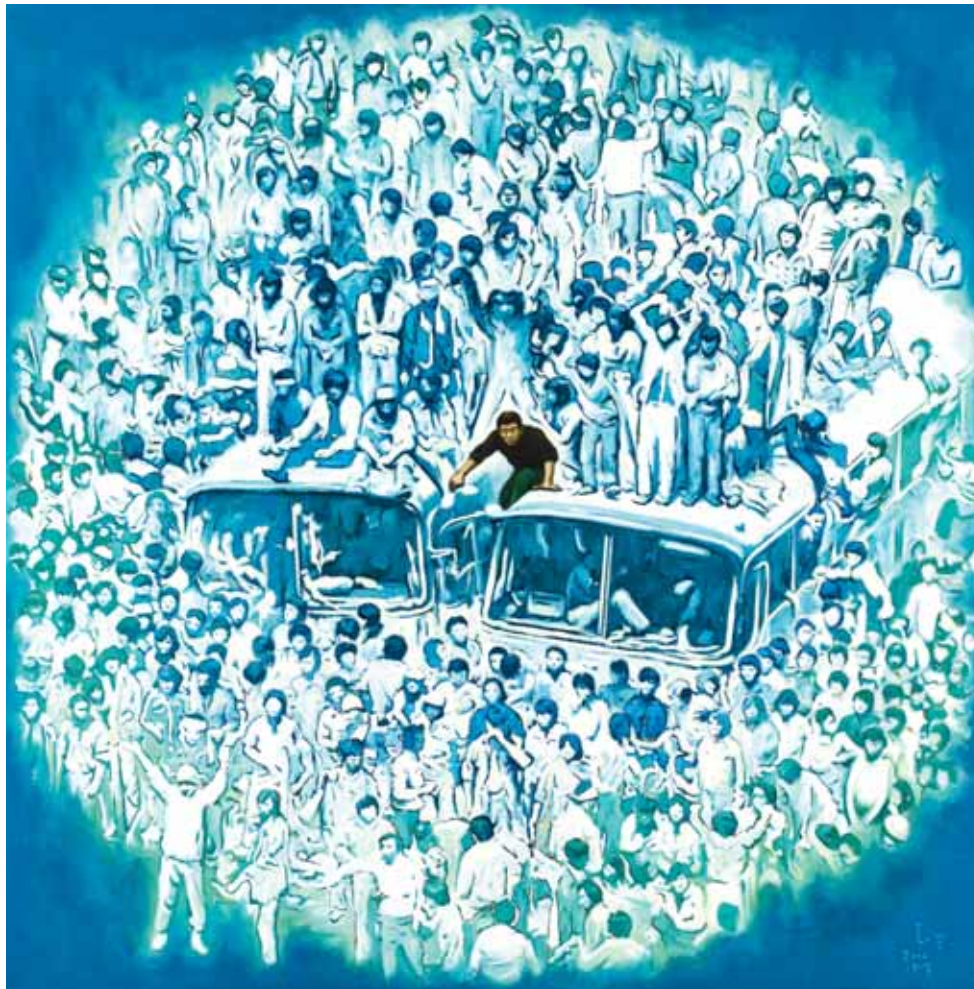
12~24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18일 '30년간의 오월전 토론회'도

양림미술관 내일부터 27일까지

5·18 38주년 기념전 '바람의 길'

작가 26명 작품 35점 선 보여



정희승 작 '광장'

1980년 이후 지역 예술인들은 '5월 광주'를 끊임없이 환기하며 수많은 작품을 통해 오월을 노래해왔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5월을 증언하고 5월 정신을 기억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길게그림, 판화 등 미술작품으로 증언했던 '오월전'은 오월문화 행사의 대표 프로젝트였다. 공권력에 의해 작품을 탈취, 파손, 도난 당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화가들은 붓을 놓지 않았고, 끊임없이 발언해왔다.

(사)광주민족미술협회가 주최해온 '오월전'이 올해 30회를 맞았다. 1988년 첫발을 댄 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전시회를 진행해온 결과다. 올해 역시 '오월전'을 열지만 올해는 좀 더 특별한 행사로 준비했다.

올해 '5·18 민주항쟁 38주년 오월전'은 두 개의 전시로 구성됐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160여 명의 작가가 함께하는 메메드급 전시로 조정태 작가가 전시감독을 맡아 행사를 꾸렸다.

먼저 '오월전' 30회 기념 특별전 '촛불이여, 오월을 노래하라!'는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사)광주민족미술협회를 비롯해 전국민미협 작가 130명이 함께하는 전시로 평면, 입체, 설치, 사진, 영상 등 20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전국민미협 작가들과의 기획전은 오월 항쟁 30주년이었던 지난 2010년 진행한 적이 있다.

'오월전' 30년의 역사를 지나며 초창기 20대 막내 작가는 지금 흰머리 들성들성한 50대 작가가 됐다. 이번 전시는 중견작가가 된 80년대 청년들이 당시 자기 또래의 젊은 작가들과 함

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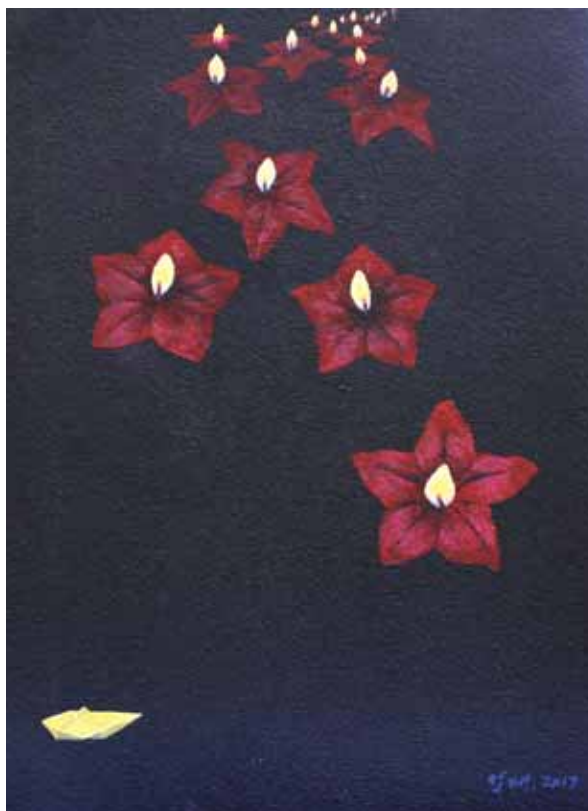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항쟁의 기억', '오월의 의미', '촛불의 노래' 등 3개의 공간으로 구성해 진행한다. 5·18민주항쟁은 1980년에 머물지 않고 지난 겨울 '촛불'에서 보듯 여전히 '오월'을 환기하며 진행중이다. 참여작가들은 인간 보편적 가치에 대한 질문을 멈추지 않는 안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 이들이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시대와 시대가 서로 소통하는 역사를 꿈꿔온 이들이기도 하다.

행사 기간 중에는 '30년간의 오월전 학술토론회'(18일 오후 3시)도 열린다. 광주민미협은 오월전 30년을 맞아 지난 4월부터 광장에서 제작되고, 사라졌던 작품들에 대한 조사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오월전 아카이빙 작업의 첫걸음으로 올해 한 차례 더 세미나를 진행한 후 내년에는 아카이브전도 열 계획이다.

전시개막식은 18일 오후 5시다. 또 다른 전시 5·18민주항쟁 38주년 기념 오월전 '바람의 길'은 광주 양림미술관에서 10일 개막해 오는 27일까지 계속된다. '촛불과 오월', '평화와 통일'로 나눠 26명의 작가가 35점을 내건 전시에는 노주익, 박태규, 이사범, 임남진, 정희승, 조정태, 허달용 작가가 등이 참여했다.

전시에서는 제주 4·3항쟁, 여순 민간인 학살, 5·18 등 과거사 정리를 통한 역사 바로 세우기, 미투 운동, 불평등한 노동현장에 대한 고발, 남북 통일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한 소재로 작업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개막식은 오는 14일 오후 5시다. 문의 062-236-051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성대 작 '별이 된 꽃들'

영상으로 만나는 디토 10주년 갈라 콘서트

광주문화재단 '씩 온 스크린'

내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스타들의 역대급 무대를 영상으로 감상하는 콘서트가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0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5층 소공연장)에서 '씩 온 스크린' 네 번째 프로그램으로 디토 10주년 갈라 콘서트 '디토 파라디소'를 선보인다.

이날 공연은 '디토'를 거쳐 간 멤버들이 출연해 향후 디토의 10년을 내다보는 무대다. 디토는 지난 2007년 리처드 용재 오닐이 시작한 '양상블 디토'에서 2009년 '디토 페스티벌'로 발전한 클래식

콘서트다. 양상블 디토를 주축으로, 많은 사람들과 클래식 음악을 공감하기 위해 마스터즈와 새로운 뮤지션이 함께하는 국내 유명 클래식 음악 페스티벌이다.

이날은 지난 10년간 함께한 디토의 피아니스트들이 한 무대에서 연주하는 스페셜 갈라 콘서트로 진행된다. 리처드 용재 오닐(비올라), 임동혁, 지용, 스티븐 린, 한지호(이상 피아노)가 함께 한다. 공연 프로그램은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K.136',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G장조 BWV 1048', '네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a단조 BWV 1065' 등이다. 선착순 100명 무료, 전화(062-670-7931) 예약 가능하다. 7세 이상 관람.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정해영 초대전

31일까지

광주수완센트럴병원

재복미술관



▶ 'The blue-청산에'

온통 푸른빛의 산수화는 생소하지만 강렬하다. 심산유곡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도, 산 뒤로 금세 넘어가는 노을도, 흐드러진 매화 꽃나무 위에 걸린 달도 모두 새파란 푸른빛 배경속에서 또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한국화가 정해영 작가 초대전이 오는 31일까지 광주 수완지구 수완센트럴병원 내 재복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 주제 'Blue에 대한 단상'이다. 전시작들은 모두 차가움, 냉정함 등 다양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푸른색을 기조로 작업한 것들로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푸른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의 하단에 화사한 꽃무리를 배치한 작품들이 눈길을 끌며 다양한 문양의 용기에 담긴

매화와 달이 어우러진 모습도 눈길을 잡는다.

작품에 일관되게 등장하는 건 아주 작은 '종이 비행기'다. 유년시절 품었던 희망과 꿈을 담아낸 소재로 보일듯 말듯 배치된 종이비행기들은 또 다른 기대를 품고 허공을 날아다닌다.

예술의거리 화가의집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정작가는 한국화의 영역을 넓히고자 드로잉소와 조명을 이용한 화화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정 작가는 올 1월 미국 LA아트스 아트페어에 아트강남갤러리&컴퍼니 소속작가로 출품, 호평 받았으며 광주와 서울, 인천 등지에서 17회 개인전을 가졌다. 문의 062-950-95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슈베르트협회 광주 연주회 11일 금호아트홀

한국슈베르트협회(회장 심두석) 광주 연주회가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괴테의 시에 의한 슈베르트의 예술가곡'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소프라노 박현진, 오진현, 주수연, 테너 유기수, 바리톤 김대수, 최은석 그리고 피아니스트 정희연, 김윤경이 함께해 '마왕'을 비롯해 유명한 슈베르트의 가곡을 선보인다.

아름다운 멜로디의 마술사 슈베르트가 대문호 괴테의 시를 통해 빛어 낸 예술가곡은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슈베르트협회는 '노래의 시인' 슈베르트의 예술혼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전문음악가들이 결성한 단체로 1985년 창설 이후 매년 2회의 정기연주회, 지방 및 해외교류 연주회를 통해 슈베르트의 작품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미래의 음악가들의 발전을 위해 슈베르트 가곡 콩쿠르를 개최, 많은 전문 성악가를 배출했다. 티켓 가격 2만원(학생 50% 할인) 공연문의 010-6331-6834.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내 집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당일 주유 오찬 정식

알찬행사를 위한 연회장
새마을을 위한 행사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